농림축산식품부	**해명자료**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8월 1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(044-201-1831), 사무관 이가인(1842) / 제공일: 8월 13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‘쌀의 날’ 시구 행사는 쌀 주산지에서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, 영세한 쌀 가공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 [머니투데이 8.13일 보도에 대한 해명]

○ **정부**는 ‘쌀의 날’을 맞이하여 우수한 한국 쌀을 소개하고, 영세한 쌀 가공기업이 생산한 쌀 가공제품 홍보 기회 마련을 위해 프로야구 경기와 연계한 홍보 행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.

○ 8월 13일 머니투데이 **<‘18일 ’쌀의 날‘ 기념 농식품부 장관 ’시구‘>**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□ ‘쌀의 날’ 행사 기념 농식품부 장관 시구행사는,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단 홈경기에 전남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인 이개호 장관이 참여하는 것은 선거 지원용이라는 뒷말

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□ ‘쌀의 날’은 오늘처럼 더운 날에도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,

○ 최근 각광받는 쌀 가공식품 체험 ·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입니다.

□ 밥쌀보다는 쌀 간편식, 쌀 과자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쌀 가공품의 변모를 보여주고자 프로야구 경기와 연계하여 ‘쌀의 날’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농식품부 장관의 야구장 행사는 이번이 2번째로* ‘쌀의 날’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여 일요일 관람객이 많은 야구장에서 행사를 진행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**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.

* ‘12년 9월 15일, 서규용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해 인천 문학구장에서 행사 진행

** 체험 제품은 '쌀 가공제품 Top 10' 선정 제품 중,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, 야구 경기를 보며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

□ 쌀의 주산지인 전라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